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의 진로인식실태와
진로인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중국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영욱

2005년 8월

중학생의 진로의식실태와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중국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허철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김영옥

김영옥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초록>

중학생의 진로의식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중국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김 영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의 진로의식실태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 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어떠한가?

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 연변지역에 소재한 6개 중학교 학생 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40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진로의식 실태조사는 한국교육 개발원(1996)의 <진로인식에 관한 기초 조사연구>를 참고로 중국 연변 지역 중학생의 실태에 맞게 본 연구자가 보완하여 작성하였고 진로의사결정 유형 검사는 Harren(1984)의 설문지를 고향자가 (1992)번안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진로의식 실태에 대한 조사-5개 하위요인(자아에 대한 인식, 진로계획, 직업가치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태도)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해내서 비교 분석하였고 진로의사결정유형 3개 하위요인(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은 t검증과 F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p<.01$ 과 $p<0.5$ 의 유의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아에 대한 인식 면에서 아직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 소질과 적성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 층인 자녀들

이 보편적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높다.

2)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은 많은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장래 직업에 대한 확정도는 매우 낮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대한 요해가 깊지 못하며 직업공부에 대한 흥미가 높지 못하다.

3) 직업에 대한 태도는 직업선택에서 거의 반수의 학생들이 보수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며 결혼한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하여 여학생과 남학생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70%이상의 여학생이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길 원하고 있으며 경제 수준이 상위 층 자녀들이 중 하위 층 자녀에 비하여, 대졸 자녀들이 고졸이나 중졸 자녀에 비하여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4)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이 없고 고민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구직 분야에 대한 요해가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며 부모나 다른 사람의 권유,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진로선택에서 부모와의 의견차이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대졸이나 중졸자녀에 비하여 고졸 자녀들이 부모와의 의견차이가 더 많았다.

5) 직업가치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정을 받는 직업', '보수 많은 직업', '안정된 직업', '장래성이 있는 직업', '승진기회가 많은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고 또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도 자녀의 직업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6) 중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많고 의존적의사결정은 성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학력수준은 자녀의 의사결정유형에 관계가 없다. 이는 중국연변지역에서 중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지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여 학생들의 진로의식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원인과 가정교육이 민주적인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의 일방적인결정을 자녀들이 많이 따르고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에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가정의 경제수준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 이라 보인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중국연변의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의 중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진로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진로의식의 개념과 중요성	4
2. 진로의식발달의 단계와 특징	9
3. 진로의사결정의 개념과 유형	11
4.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선행 연구	1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절차	19
3. 측정도구	19
4. 자료처리	20
IV. 연구결과 및 해석	21
1. 진로의식 실태분석	21
2.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차이 검증	50
V. 요약, 결론 및 제언	53
1. 요약	53
2. 결론	57
3. 제언	58
참고 문헌	60
Abstract	63
부 록	67

표 목 차

<표Ⅲ- 1> 지역별 표집대상	18
<표Ⅲ- 2> 대상의 특성별 구분	19
<표Ⅲ- 3> 진로의식 설문지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20
<표Ⅲ- 4> 진로의사결정유형 설문지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20
<표Ⅳ- 1> 자기 능력과 소질에 대한 이해 정도	21
<표Ⅳ- 2> 자기 능력과 소질 수준에 대한 평가	22
<표Ⅳ- 3> 공부에 대한 흥미 정도	23
<표Ⅳ- 4> 자기 특기 소유에 대한 유무	24
<표Ⅳ- 5> 자기소질이 학급에서의 정도	25
<표Ⅳ- 6> 자기소질을 가꾼 후의 변화에 대한 예측	26
<표Ⅳ- 7> 중학교 때부터의 직업공부에 대한 인식	27
<표Ⅳ- 8> 직업공부에 대한 관심정도	28
<표Ⅳ- 9> 직업종류에 대한 인식	29
<표Ⅳ-10> 일의 종류 변화에 대한 예측	30
<표Ⅳ-11> 장래 직업결정에 대한 유무	31
<표Ⅳ-12> 부모의 직업에 대한 이해 정도	32
<표Ⅳ-13> 직업선택에 있어서 능력, 적성의 작용에 대한 인식	33
<표Ⅳ-14> 직업선택에서의 보수대한 인식 정도	33
<표Ⅳ-15>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에 대한 인식 정도	35
<표Ⅳ-16>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한 인식	36
<표Ⅳ-17> 결혼한 여성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데 대한 인식	37
<표Ⅳ-18>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을 갖는데 대한 인식	38
<표Ⅳ-19> 확실한 진로계획에 대한 유무	39
<표Ⅳ-20> 진로계획을 세울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40
<표Ⅳ-21> 자기가 원하는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정도	40
<표Ⅳ-22> 상급학교를 진학하려는 이유	42
<표Ⅳ-23> 자기의 진로선택 단계에 대한 인식	43
<표Ⅳ-24>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점은	44
<표Ⅳ-25> 인정과 존중을 받는 직업에 대한 인식	45

<표IV-26>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인식	46
<표IV-27> 안정된 직업에 대한 인식	47
<표IV-28> 승진기회가 많은 직업에 대한 인식	48
<표IV-29> 장래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인식	49
<표IV-30> 근무시간이 적당한 직업에 대한 인식	50
<표IV-31>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성별차이	51
<표IV-32>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가정의 경제상황별 차이	51
<표IV-33>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	52

그림 목차

[그림 II-1] 의사결정의 절차.....	13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21세기는 첨단과학기술 및 정보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직업 세계의 과학화, 정보화, 세계화 및 세분화, 전문화가 어느 때 보다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간은 각 분야에서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현재의 첨단기술과 정보화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최첨단 테크노 정보화 산업시대에 적응하고 주도할 사람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는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직업세계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어, 미래사회를 담당할 우수인력을 균형 있게 계발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

이창호(1987)는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무시하고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육성하여주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직업세계를 포함한 현실적 삶의 세계를 이해시키는데 있어서도 매우 소중히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학교의 진로의식은 돈이나 출세보다 자신의 적응과 능력의 발휘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에서 이에 부응하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시 되며 직업에 귀천이 존재한다고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산업구조를 예측하면서 정보제공에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건전한 진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 발견하여 계발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진로의식을 올바르게 일깨워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각 개인이 장래 사회활동에서 원만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한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학교교육의 역할을 불구하고 중국 연변지역교육은 아직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결정에서 흥미나 적성 또는 능력과 개성에 맞는 진로 지도보다는 학생, 부모, 교사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진로지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입시위주에 초점을 맞추고 무조건 실업계고보다는 인문고, 그 중에서도 명문고나 일류대를 선호하는 그릇된 경향이 있다(백형률,1995).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욕심 등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성숙된 진로의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욱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 적성, 흥미, 환경적 요인, 미래의 직업세계의 변화 등에 충분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히 학교 성적순위에 의하여 진로를 선택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전반 교육 풍토라 할 수 있다(조남형, 1998).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앞으로 바람직한 진로교육, 진로지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획득하여 가는 지속적인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연변지역 조선족 중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조사, 분석하여 중학생 발달 단계에 알 맞는 진로교육 자료와 바람직한 진로지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현재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는 어떠한가?

1-1. 진로의식실태는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어

떤 특징이 있는가?

1-2. 진로의식의 하위요인인 자아인식, 직업가치관, 진로계획, 직업태도는 어떠한가?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중국연변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인 합리적·의존적·직관적의 사결정은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6개 현시의 일부 중학교 학생으로 한정 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 연변지역 중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2)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진로의식실태조사와 진로의사결정유형 조사 두 가지 설문지를 사용했는데 진로의식 실태조사는 한국교육 개발원(1996)의 <진로인식에 관한 기초조사연구>를 참고로 연변지역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본 연구자가 보완하여 작성한 설문지이고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조사는 Harren(1992)의 설문지를 고향자가(1992)번안 수정한 설문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국연변지역에 사용함에 다소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의식의 개념과 중요성

1) 진로의식의 개념

의식이란 깨어 있을 때의 마음의 작용이나 상태로 자기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의 주관적인 반응으로서 스스로의 느낌,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쳐지는 심리적 내용이다.

대체로 의식은 행동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사고 경향성으로 사용되어져 오면서 의식, 의식구조, 가치관, 태도, 가치의식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들 개념간의 분명한 구분은 매우 어렵다(김철규, 2001).

진로(Caree)란 개인의 일생에서 하는 일의 총체로서 즉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계열을 의미한다(김충기, 1986).

진로의식이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참된 가치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관등을 포함하는 의식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 생활의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앞으로의 사회요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여 이해하고 사고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의식 구조를 말한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연구소, 1981).

한국교육개발원(1986)은 진로인식단계와 탐색단계에서 자기이해,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의사결정, 진로설계 수준 등 각 영역에 포함된 하위요인들을 합친 총체를 진로의식이라 하였다.

강무섭·박영숙(1986)은 진로의식 발달의 측면에서 “직업적 자아주체성의 형성으로서 이것은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아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인식하거나 사고하는 일을 의미 한다”고 보았으며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1997:4)에 의하면 “진로의식이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어 내면화된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개별적인 독특성을 지니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진로의식은 각 개인이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진학 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의식 수준은 그 개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 자신이 속해 있는 연령층에서 기대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의식은 다양한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의 소질, 적성, 흥미 등을 발견 계발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 결정해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진로교육과 진로의식의 중요성

진로교육은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발전·개발·보급된 새로운 지도교육의 개념이다.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된 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1980년대 초부터 한국 교육현장에서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행복한 개인으로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공헌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자 선진교육으로서의 진로교육과 진로의식의 개념과 방법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김철규,2001).

진로교육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의 산업발달, 직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 흐름에 적응하도록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을 심어주고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최첨단 테크노, 정보화 사회의 직업세계와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합당한 진로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직업적인 능력, 바람직한 직업의식, 합리적인 진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진로설계, 선택, 결정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의 모든 교육활동과 연결된 시간적인 연속선상에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진로교육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미래의 방향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진로교육의 관점을 수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기에 진로교육 및 진로의식을 다음과 같은 국가,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였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기능이 분화되고 산업화됨에 따라 일과 직업세계가 다양해지고 다원화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진로교육과 진로의식의 중요성을 개인적 측면 및 국가적 사회적 측면으로 고찰 해 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1986).

(1) 개인적 측면

현대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세계에서 자기에게 맞는 일과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의 적성, 흥미, 인성, 신체적 적성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와 직업에 맞게 능력과 적응성을 가꾸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아 인식 능력 향상에 대한 개인적 필요가 인정되는 만큼 진로 교육의 요청은 그 만큼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 및 본질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 혁명이래 세계는 산업화와 더불어 직업의 전문화 및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선진국의 경우는 2만 내지 3만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게 되었고 한국의 경우도 현재 1만여 직업의 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1000여 개의 새 직종이 생겨났고 300여 개의 직종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외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 없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대한 요청이 절실하다.

현대사회에서 일이란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며, 직업은 생계의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을 천시하거나 싫어하는 풍조를 추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입시경쟁이 치열하게 된 원인의 하나도 따지고 보면 직업을 사회봉사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돈과 권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보려는 생각에 비롯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은 가치관과 태도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과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관을 길러주고 일에 대한 바른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주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관점이 학교 교육일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속에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일과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서 진로교육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학생들이 인생의 목표 설정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 없이 직업과 일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객관적 정보도 없이 오직 학력고사 점수에 의하여 그리고 입시 출세 지향적인 사회적 통념 및 학부모의 권고에 의하여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학생들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 이기보다 안정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쪽으로 편입되어가고 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교육은 인생의 진로가 다양하며 자기

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2) 국가 및 사회적 측면

사회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이 균형된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절실했다. 직업과 일의 세계가 어떻게 앞으로 열려져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직업과 일의 세계가 가능해 질 것인지를 모르고서는 그런 직업 세계에 맞는 적성과 흥미 및 희망을 발견하고 가꾸어 나갈 수 없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개발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적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

진로교육은 과열 과외 및 재수생 문제의 해결 방편이 될 수 있다. 과열 과외 및 재수생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되겠으나 그 중의 하나는 분명히 오도된 진로 의식 및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대학을 나와야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더 출세하고 더 잘 살수 있다는 오도된 가치관이다. 학벌위주의 사회 구조, 능력에 의한다기보다는 학력 위주에 의한 인급 체계, 학벌을 사회적 간판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등은 모두 일과 직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도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로교육은 무직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고 건전한 사회적 직업윤리 의식의 확립이란 점에서 요청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직업 수행에 있어서 생산성이 좀 더 고양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진로교육의 필요성은 개인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직업 태도와 진로결정능력을 길러줄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며,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이 균형된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절실하고 건전한 사회적 직업윤리 의식의 확립이란 점에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개괄할 수 있겠다.

2. 진로의식 발달의 단계와 특징

진로의식 발달이론은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와 기능이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성숙해진다라는 개념이며, 개인의 일생에서 발달적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진로의식 발달이론으로는 Ginzberg와 Super등의 이론적 견해를 들 수 있다.

1) Ginzberg의 발달이론

Ginzberg는 진로의식 발달단계를 환상기(fantasy period), 잠정기(tentative period), 현실단계등 3개 단계로 나뉘어 그 특징을 분석 하였다.

환상기(fantasy period)는 직업선택의 문제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구를 중시하는 시기로서 대개 6세에서 11세까지가 이 단계에 속하는데 아동은 무엇이던 하고 싶고, 하면 된다는 식의 환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잠정기(tentative period)는 개인이 자신의 흥미나 취미에 따라 직업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대략 11세부터 17세까지 해당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시기 후반에 가면 능력과 가치관 등의 요인도 조금 고려되지만 현실 상황을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문제에서 다분히 비현실적인 성격을 띤다. 이 단계는 흥미단계(좋아하는 활동과 싫어하는 활동에 대한 일에 대한 기호를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 능력단계(자기포부수준과 실제능력을 의식), 가치단계(직업과 관련한 가치관이 명료화), 전환단계(본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가치관의 명료화) 등 네 가지 하위단계로 나뉘어 진다.

현실단계는 17세 이후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개인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자고 한다. 하위단계로는 탐색단계(선택 가능한 직업을 2, 3개로 축소하고 본격적인 탐색시작),

구체화 단계(특정된 직업에 대한 몰입시작), 특수화 단계(특정적인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과 준비 돌입)로 나눌 수 있다.

Ginzberg의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 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의 외적 요인간의 타협을 통해 직업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업의 선택은 삶의 어느 한 시기에 이뤄지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Super의 발달이론

Super(1957)는 진로발달이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 동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전 생애 적 발달이론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에 핵심적인 가정은 직업 혹은 일에 대한 자아개념이 그 개인의 직업선택 행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는 진로의 발달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로 제시했다(김계현, 2001).

성장기(growth stage)는 출생해서 14세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 아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에 대해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이 단계의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하위단계들로 환상기(fantasy substage, 4-10세), 흥미기(interest substage, 11-12), 능력기(capacity substage, 13-14) 등이 있다.

탐색기(exploration stage)는 15세에서 24세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 개인은 학교활동, 여가활동, 시간제 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탐색을 시도한다. 하위단계들로 잠정기(tentative substage, 15-17), 전환기(transition substage, 18-21), 시행기(trial substage, 22-24) 이다.

이 시기는 직업의 범위가 좁혀지고 구체화 되었지만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

확립기(establishment stage)는 25세부터 44세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종사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 시기의 하위요인은 시행기(trial substage, 25-30), 안정기(stabilization substage, 31-44)이다.

이 시기는 직업수행 경험을 통해 자기의 직업을 확정하고 안정시키는 시기이다.

유지기(maintenance stage)는 45세부터 66세까지이시기로 이 시기에 개인은 안정된 속에서 비교적 만족스런 삶을 살아간다.

쇠퇴기(decline stage)는 65세 이후의 시기로 이 시기에 개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직업전선에서 은퇴하게 되므로 다른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된다.

Super는 직업선택 과정은 인간발달과정 및 발달단계에 부합되는 과정으로서 전체발달과정의 일부이며 누구든지 이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로유형은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차, 능력, 노력, 환경, 문화,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보았으며 직업발달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개념은 유아시기부터 형성되어 그 후로 전환, 실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을 때까지 발달되지만 청년후기 이후에는 큰 변화를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로의식발달 단계와 특징이 진로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지도의 목표, 내용, 방법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등에 관한 보다 발전적 시각과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3. 진로의사결정의 개념과 유형

1) 진로의사결정의 개념과 절차

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한 준거에 의거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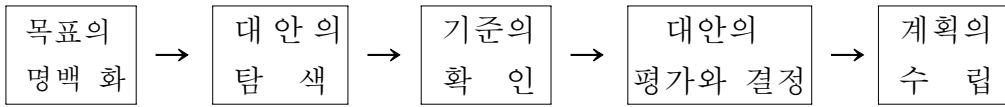
의사결정은 진로교육의 핵심으로서 장래 어느 분야에서 어느 직업을 가질 것 인지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깊이 생각해야하고 결정해야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김계현, 2001).

의사결정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Ginzberg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의 요지는 개인이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직업 중에서 자신의 투자가 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심리학과 결합되어 직업 심리학에서 처음 이용된 것은 50년대 중반이지만 개인의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 문제에 심리학적 의사결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은 1960년대이다(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Krumboiz에 의하면 진로결정이란 진로에 관련된 사회적 강화, 모델화 직접강화, 그리고 단어 및 이미지의 결과로서 선호적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Crites는 개인이 특별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의 표현으로 진로결정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Jepsen과 Miar는 진로결정을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특수한 영역으로 보고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와 진로에 대한 조건들을 관련지을 때의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김지영, 1995, 재인용).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 다양한 결정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김충기(2000)는 의사결정 절차를 [그림 II-1]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1] 의사결정의 절차

이처럼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분히 합리적인 사고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은 여러 대안들 중 자신의 기대치를 최대로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들은 의사결정과제라는 자극에 대하여 저마다 독특한 반응양식을 나타낸다.

학자들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진로의사결정은 선호적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으로서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에 옮기는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겠다.

2) 의사결정의 유형

사람마다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대처하거나 또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문제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형식 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이용되는 접근 방법과 결정방식을 의사결정 유형이라고 한다(한국진로학회, 1999).

의사결정 유형은 학자들 마다 다르다.

Dinklage(1969)는 학생들이 교육과 직업 및 기타 일상적인 일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구명하여 계획형, 직관형, 동조형, 숙명론적 유형, 충동형, 지연형, 고민형, 및 무력형의 8가지 의사결정 유형으로 확인하였다. 이 유형들은 모두 세 가지 영역에서 이용 된다. 여기에서 계획적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고, 의존적 유형은 가장 비효과적이며 직관유형은 두 유형의 중간 정도이다.

Harren(1979)은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정적 유형, 또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향자,1992, 재인용).

Arroba(1978)는 의사결정 유형을 무사유형, 동조형, 논리형, 감정형, 직관형, 주저형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는 이러한 의사결정 분류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 유형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결론지었다.

의사결정 유형을 ‘개인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전략’으로, Harren(1979)은 “개인이 의사결정을 지각하고 이에 반응하는 특징적 유형, 혹은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하였다(윤형환, 1999.재인용).

이러한 견해를 기초로 하여 고향자(1992)는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이라고 하였다.

Harren(1979)은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 또는 정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고향자, 1992. 재인용)

합리적 유형(rational style)은 확장된 시간조망 내에서 연속적인 결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자신이 행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직관적 유형(intuitive style)은 합리적 유형과 같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보탐색 행동이나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 과정도 거의 갖지 않는다. 현재의 감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서적 지각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을 비교적 빨리 내리고 그 결정의 적절성은 내적으로 느낄 뿐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은 특성을 갖는다.

의존적 유형(dependent style)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과는 다르게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외부로 投射(투사)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는다.

Harren(1976)은 진로와 관련지어 진로의사결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 그것을 수정 보완 하면서 다시 일반적인 의사결정 유형을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유형도 결국 다른 일상사와 의사결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서우석, 1994. 재인용)

개인의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교육이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교육자나 상담자 에게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진로의식과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선행 연구

진로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면, 중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 단점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며 장래 본인의 직업을 정하는 데는 부모나 가족 또는 메스컴의 영향보다 자기의 적성, 능력, 소질을 생각하여 자기 자신이 정하고 있다. 고교진학의 경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부분 인문계 고교를 선택하고 빠른 사회적 성공을 위해 실업계 고교를 선택하고 있다(진동렬, 1997).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진로인식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하위영역에서도 일의 세계나 의사결정 능력에서는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다. 중학생의 사회경제적 수준별 차이는 전체적으로 상위그룹이 중 하위 그룹보다 높으며 일에 대한 태도에서는 상위그룹과 중하위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결정에서는 상위그룹이 중하위 그룹보다 약간 높고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상위그룹이 중하위그룹보다 높다. 중학생의 보호자의 직업별 차이에 따른 직업인식은 전문직, 관리직, 농수산직과 기능직 순으로 전문직이 가장 높고 농수산직과 기능직이 가장 낮다(김영만

2001).

임병호(1997)는 중학생들의 진로의식 발달에 대한 관심정도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이 높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이 진로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찬규(1997)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많은 생각과 탐색을 하고 있지만 진로의 선택은 학교학업 성적에 의해 결정지어진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의사결정 유형에서의 성차에 관한 서우석(199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내담자의 성별에 기초하여 상담개입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향자(1992), 이현숙(1998)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직관적 유형의 점수가 높다고 보고 있고 한편 진로미결정 유형에서의 성차에 관한 진윤경(2000)의 연구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배중훈(1999)의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유형별 남녀의 빈도에 대한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의사결정유형의 사회 계층(가장의 교육수준, 가족의 월평균 소득)간 차이에 관한 서우석(1992)의 연구에서는 가장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수준 집단에 따라서는 합리적 유형의 점수가 높았으나 사후 비교 결과 소득수준의 개별 집단간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직관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 점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차가 없었다. 한편 진로 미결정 유형에 따른 사회 경제적 배경간의 차이에 관한 배중훈(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의사결정유형은 성별, 사회계층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년, 계열, 주요타자(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인정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양재석, 2001).

임태욱(2000)은 진로의사결정유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며 의존적인 유형도 높기 때문에 독립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남학생의 경우 직관적 의사결정보다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고 하였다.

고향자(1992)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성에 따른 차별적인 성역할 태도를 요구하기보다는 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자신의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며,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의 결정을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학습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남학생이 직업선택에 대하여 더 확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더 절박히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가능한 직업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직업선택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성차가 심한 직업세계에서 취업가능성 범위가 좁고 여성의 가정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여성 스스로가 직업선택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형성이 남학생보다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학생을 위한 진로결정 상담이 성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강조점이 달라져야함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학년, 계열, 사회계층 및 중요한 타자(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인정도에 따른 진로 의식이나 진로의사결정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불일치는 후속의 연구에서 좀 더 이론적 측면에서 근거를 두고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의식 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위하여 문헌을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연변지역에 소재 한 6개 조선족 중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미 회수 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400부를 최종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표집 대상을 학생들의 지역별,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별,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1> 지역별 표집 대상 분포

단위:명

구 분	남	여	합계
연 길	5 0	5 0	1 0 0
도 문	3 0	3 0	6 0
훈 춘	3 0	3 0	6 0
화 룡	3 0	3 0	6 0
용 정	3 0	3 0	6 0
안 도	3 0	3 0	6 0
계	2 0 0	2 0 0	4 0 0

<표Ⅲ-2> 대상의 특성별 구분 명(%)

구분		대상		계
성별	남	200	(50.00%)	400(100%)
	여	200	(50.00%)	
가정경제수준	상위	21	(5.25%)	400(100%)
	중하위	379	(94.75%)	
부모의 학력수준	대졸이상	75	(18.75%)	400(100%)
	고졸이상	305	(76.25%)	
	중졸이하	20	(5.00%)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4년 6월 15일부터 25일 까지 10일 동안 중국 연변 주 교육학원 민족연구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연변 주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600부를 배부하고 즉석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진로의식 실태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1996)의 <진로인식에 관한 기초조사연구>를 참고로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들 실정에 맞게 본 연구자가 보완하여 작성하였는데 진로의식 조사지는 여섯 개 하위 요인--자아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가치관, 진로계획, 직업에 대한 태도로 각각 6개 문항씩 총 30문항이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유형 검사는 Harren(1984)설문지를 고향자가 (1992)번안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3개 하위 요인--합리적 의사결정, 의존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으로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에 포함된 조사영역과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Ⅲ-4> 진로의식 설문지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하위유형	문항 수	문 항번호	α 값
자아의 이해	6	1. 2. 3. 4. 5. 6.	.68
직업세계의 이해	6	7. 8. 9. 10. 11. 12.	.83
직업가치관	6	13. 14. 15. 16. 17. 18.	.76
진로계획	6	19. 20. 21. 22. 23. 24.	.56
직업태도	6	25. 26. 27. 28. 29. 30.	.67

<표Ⅲ-5> 진로의사결정 유형 조사 질문지의 구성내용 및 문항수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α 값
합리적 의사결정	10	1. 3. 5. 10. 13. 15. 17. 22. 25. 27	.57
직관적 의사결정	10	2. 7. 8. 11. 16. 19. 21. 23. 28. 30	.34
의존적 의사결정	10	4. 6. 9. 12. 14. 18. 20. 24. 26. 29	.55

4.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진로의식 실태에 대한 조사- 5개 하위요인(자아에 대한 인식, 진로계획, 직업가치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태도)의 30개 문항을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별, 가정의 경제상황별의 빈도와 백분율 산출해내서 비교 분석하였고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해서는 3개 하위유형(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성별, 가정의 경제상황별 평균점수를 산출해내어 t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p<.01$ 과 $p<0.5$ 의 유의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의사결정유형의 부모의 학력수준차이는 F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p<.01$ 과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의 진로의식 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진로의식실태 분석

1) 자아에 대한 이해정도

(1) 자기능력, 소질에 대한 이해 정도

<표IV-1>은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자기 능력과 소질에 대한 이해 정도를 성별, 가정의 경제상황별, 부모의 학력수준별로 알아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능력과 소질에 대하여 “대충 안다”로 응답한 학생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잘 안다”가 31%이고 ‘잘 모른다’가 20.25%, ‘전혀 모른다’가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 자기능력과 소질에 대한 이해 정도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전혀 모른다	7 (1.75)	-	7 (3.50)	-	7 (1.85)	5 (6.67)	2 (-)	-
잘 모른다	81 (20.25)	45 (22.50)	36 (18.00)	4 (19.05)	77 (20.32)	16 (21.33)	62 (20.33)	3 (15.00)
대충 안다	188 (47.00)	92 (46.00)	96 (48.00)	7 (33.33)	181 (47.76)	25 (33.33)	156 (51.15)	7 (35.00)
잘 안다	124 (31.00)	63 (31.50)	61 (30.50)	10 (47.62)	114 (30.08)	29 (38.67)	85 (27.87)	10 (5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남, 여를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로 응답한 남학생은 0%로 한명도 없는 외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정경제수준이 상위인 학생이 중, 하

위 학생보다 자기 능력과 소질을 “잘 안다”로 응답한 학생이 47.62%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이 “잘 안다”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자기능력, 소질에 수준에 대한 평가

<표Ⅳ- 2>는 자기 능력과 소질수준에 대한 평가를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다. “ 좀 낮다”가 46%로 제일 높게 나왔고 다음은 “ 좀 높다”가 45.25%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높다”와 “낮다”가 각각4.75%와 4.00%순으로 나타났다.

<표Ⅳ-2> 자기능력과 소질 수준에 대한 평가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낮다	16 (4.00)	11 (5.50)	5 (2.50)	-	16 (4.23)	2 (2.67)	11 (3.61)	3 (15.00)
좀 낮다	184 (46.00)	87 (43.50)	97 (48.50)	9 (42.86)	175 (46.17)	31 (41.33)	141 (46.23)	12 (60.00)
좀 높다	181 (45.25)	87 (43.50)	94 (47.00)	9 (42.86)	172 (45.38)	38 (50.67)	139 (45.57)	4 (20.00)
높다	19 (4.75)	15 (7.50)	4 (2.00)	3 (14.28)	16 (4.22)	4 (5.33)	14 (4.59)	1 (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낮다”와 “높다”에서 각각 5.5%, 7.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좀 낮다”와 “좀 높다”가 각각 43.50%, 43.50% 으로 좀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경제수준이 상위 층인 학생에서 “낮다”는 나타나지 않았고 “높다”가 14.28%로 중, 하위 층 4.22%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를 보면 중졸이하의 자녀들이 “낮다”가 15%로 대졸2.67%와 고졸3.61%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다.

(3) 공부에 대한 흥미정도

<표IV-4> 자기특기 소유에 대한 유무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전혀없다	7 (1.75)	4 (2.00)	3 (1.50)	-	7 (1.85)	-	6 (1.97)	1 (5.50)
별로 없다	120 (30.30)	53 (26.50)	67 (33.50)	7 (33.33)	113 (29.82)	18 (24.00)	92 (30.16)	10 (50.00)
있다	212 (53.00)	109 (54.50)	103 (51.50)	9 (42.86)	203 (53.56)	33 (44.00)	162 (53.11)	7 (35.00)
자랑 할 만하다	61 (15.25)	34 (17.00)	27 (13.50)	5 (23.81)	56 (14.78)	14 (18.67)	45 (14.75)	2 (1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에서 “별로 없다”가 여학생이 33.50%로 남자26.50에 비하여 높게 나왔고 “자랑할만하다”에서 남학생이 17%로 여자13.50%에 비하여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 차이에서 “전혀 없다”가 중졸자녀 5.50%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랑 할만 하다”에서 대졸이상자녀가 18.67%로 고졸이나 중졸 자녀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5) 자기소질이 학급에서의 정도

<표IV-5>는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반에서 자기소질에 대한 평가를 알아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51.75%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좀 뛰어나다”가 39.50%이고 “많이 뛰어나다”가 5.50%, “아주 뛰어나다”가 3.25%순으로 나타났다.

<표IV-6> 자기소질을 가꾼 후의 변화에 대한 예측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 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기대안한다	14 (3.50)	9 (4.50)	5 (2.50)	1 (4.76)	13 (3.43)	2 (2.67)	10 (3.28)	2 (10.00)
그냥 그럴 것이다	92 (23.00)	38 (19.00)	54 (27.00)	2 (09.52)	90 (23.75)	13 (17.33)	70 (22.95)	9 (45.00)
조금 발전	184 (46.00)	91 (45.55)	93 (46.50)	7 (33.48)	177 (46.70)	28 (37.33)	149 (48.85)	7 (35.00)
많은 발전	110 (27.50)	62 (31.00)	48 (24.00)	11 (52.38)	99 (26.12)	32 (42.67)	76 (24.92)	2 (1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알아보면 “많은 발전”에서 남학생이 31%로 여자 24%에 비해 높았고 “그냥 그럴 것이다”에서 여학생이 27%로 남자19%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정 경제수준 차이에서 “많은 발전”이 상위 층 학생이 52.38%로 중하위층 학생 26.12%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학력 수준 차이는 “많은 발전”이 대졸자녀가 42.67%로 고졸24.92%와 중졸1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기대안한다”에서 중졸이 10%로 대졸2.67%와 고졸3.28%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바 자아에 대한 인식 면에서 아직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 소질과 적성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고 가정의 경제상황이 상위 층인 자녀들이 보편적으로 자아에 대한인식이 높다고 보아진다.

2)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1) 중학교 때부터의 직업공부에 대한 인식

<표IV-7>은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중학교 때부터 직업공부를 하는데 대

하여 알아본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간찬성’이 44.50%로 제일 높은 비율로 나왔고 다음은 ‘매우찬성’이 25.50%, ‘약간반대’가 20.25%이고 ‘매우반대’가 9.75%순으로 나타났다.

<표IV-7> 중학교 때부터의 직업공부에 대한 인식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반대	39 (9.75)	25 (12.50)	14 (7.00)	4 (19.05)	35 (9.23)	5 (6.67)	30 (9.84)	4 (20.00)
약간 반대	81 (20.25)	37 (18.50)	44 (22.00)	3 (14.28)	78 (20.58)	14 (18.67)	60 (19.67)	7 (35.00)
약간 찬성	178 (44.50)	88 (44.00)	90 (45.00)	8 (38.10)	170 (44.85)	36 (48.00)	136 (44.59)	6 (30.00)
매우 찬성	102 (25.50)	50 (25.00)	52 (26.00)	6 (28.57)	96 (25.33)	20 (26.67)	79 (25.90)	3 (1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보면 ‘매우반대’에서 남학생이 12.50%로 여학생 7%에 비하여 높았고 ‘약간반대’, ‘약간찬성’, ‘매우찬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정 경제 상황차이는 ‘매우반대’에서 상위 층 학생이 19.05%로 중하위층 9.25%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에서 중졸 자녀 중 ‘매우반대’가 20%이고 대졸 6.67%, 고졸 9.84%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매우찬성’은 대졸 자녀가 26.67%, 고졸 자녀가 25.9%로 중졸15%에 비하여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2) 직업공부에 대한 관심정도

<표IV-8>은 직업공부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관심정도 통계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있다’가 53.32%로 제일 높았고 ‘별로 관심이 없다’가 21.75%로 다음은 ‘매우 관심이 있다’가 20.25%였고 ‘전혀 관심이 없다’가 4.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8> 직업공부에 대한 관심정도

빈도 (%)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전혀 관심 없다	19 (4.75)	14 (7.00)	5 (2.50)	-	9 (5.13)	3 (4.00)	14 (4.59)	2 (10.00)
별로 관심 없다	87 (21.75)	41 (20.50)	46 (23.00)	5 (23.81)	82 (21.64)	14 (18.67)	70 (22.95)	3 (15.00)
약간 있다	213 (53.25)	105 (52.50)	108 (54.00)	9 (42.86)	204 (53.83)	33 (4.00)	169 (55.41)	11 (55.00)
매우 관심 있다	81 (20.25)	40 (20.00)	41 (20.50)	7 (33.33)	74 (19.53)	25 (33.33)	52 (17.05)	4 (2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혀 관심이 없다’에서 남학생이 7%로 여학생 2.5%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가정 경제상황 차이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상위 층은 한명도 없었고 중하위층 학생이 5.13%로 나왔고 ‘매우 관심이 있다’는 상위 층 학생이 33.33%로 중하위 층 19.53%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차이에서 ‘매우 관심이 있다’가 대졸 자녀가 33.33%로 고졸 17.05%와 중졸 2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다.

(3) 직업종류에 대한 인식

<표Ⅳ-9>는 전체 응답자의 직업종류에 대한 인식을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알다’가 48.50%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는 ‘많이 알다’가 34.50%이며 ‘별로 알지 못하다’가 9.75%이며 ‘매우 많이 알다’가 6.50%순으로 나타났다.

<표IV-9> 직업종류에 대한 인식

빈도 (%)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별로 알지 못하다	39 (9.75)	21 (10.10)	18 (9.10)	2 (9.52)	37 (9.76)	3 (4.40)	33 (10.82)	3 (15.00)
약간 알다	194 (48.50)	93 (46.50)	101 (50.50)	9 (42.86)	185 (48.81)	31 (41.33)	152 (49.85)	11 (55.00)
많이 알다	138 (34.50)	72 (36.00)	66 (33.00)	7 (33.33)	131 (34.56)	29 (38.64)	133 (43.61)	6 (30.00)
매우 많이 알다	29 (6.50)	14 (7.00)	15 (7.50)	3 (14.28)	26 (6.86)	12 (16.00)	17 (5.57)	-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정경제상황 차이에서 ‘매우 많이 알다’가 상위 층 학생이 14.28%로 중하위 층 학생 6.86%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차이에서 ‘별로 알지 못하다’가 중졸자녀 15%, 고졸자녀 10.82%로 대졸자녀 4.40%에 비하여 높았으며 ‘매우 많이 알다’가 대졸자녀가 16%로 고졸 자녀 5.57%와 중졸자녀 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다.

(4) 일의 종류의 변화에 대한 예측

<표IV-10>은 전체 응답자의 일의 종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알아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늘 것이다’가 38%로 제일 높았고 다음은 ‘매우 늘 것이다’가 32%이고 ‘약간 줄 것이다’가 21.25%이며 ‘매우 줄 것이다’가 8.75%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10> 일의 종류의 변화에 대한 예측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줄 것이다	35 (8.75)	21 (10.50)	14 (7.00)	-	35 (9.23)	5 (6.67)	28 (9.18)	2 (10.00)
약간줄것이다	85 (21.25)	36 (18.00)	49 (24.50)	4 (19.04)	81 (21.37)	15 (20.00)	63 (20.66)	7 (35.00)
약간 늘 것이다	152 (38.00)	74 (37.00)	78 (39.00)	9 (42.86)	143 (37.73)	26 (34.67)	118 (38.69)	8 (40.00)
매우 늘 것이다	128 (32.00)	69 (34.50)	59 (29.50)	8 (38.10)	120 (31.66)	29 (38.67)	96 (31.48)	3 (1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매우 늘 것이다’는 남학생이 34.50%로 여학생 29.50%에 비하여 높았고 가정 경제상황 차이에서 ‘매우 늘 것이다’가 상위층 학생이 38.10%로 중하위층 학생31.66%에 비하여 높았고 ‘매우 줄 것이다’에서 중하위 층 학생이 9.23%이고 상위 층 학생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에서 ‘매우 늘 것이다’가 대졸자녀 38.67% 이고 고졸 자녀가 31.48%에 비해 중졸자녀가 15%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5) 장래직업에 대한 확정도

<표Ⅳ-11>은 전체응답자의 장래직업에 대한 확정 도를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각 중’이 47.25%로 제일 높았고 다음은 ‘결정했다’가 39.50%이고 ‘확실히 결정했다’가 6.75%이며 ‘전혀 고려 없다’가 6.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11> 장래직업에 대한 확정도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전혀 고려 없다	26 (6.50)	23 (11.50)	3 (1.50)	2 (9.52)	24 (6.33)	4 (5.33)	21 (6.88)	1 (5.00)
생각 중	189 (47.25)	95 (47.50)	94 (47.00)	9 (42.86)	180 (47.49)	27 (36.00)	151 (49.51)	11 (55.00)
결정했다	158 (39.50)	71 (35.00)	77 (38.50)	8 (38.10)	150 (39.58)	35 (46.67)	117 (38.36)	6 (30.00)
확실히 결정했다	27 (6.75)	11 (5.00)	16 (8.00)	2 (9.52)	25 (6.60)	9 (12.00)	16 (5.25)	2 (1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전혀 고려 없다’가 남학생 11.50%로 여학생 1.50%에 비하여 높았고 가정 경제수준 차이를 보면 ‘전혀 고려 없다’ 상위 층이 9.52%로 중하위 층6.33%에 비하여 높았고 ‘생각 중’과 ‘결정했다’는 중하위 층이 상위 층에 비하여 높게 나왔으며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확실히 결정했다’가 대졸 자녀 12% 중졸자녀 10%이고 고졸자녀 5.25%순으로 나타났다.

(6) 부모의 직업에 대한이해정도

<표Ⅳ-12>는 전체 응답자가 부모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잘 알고 있는 편이다’가 47.25%로 제일 높았고 ‘아주 잘 알고 있다’가 35.75%이며 ‘조금 알다’가 14%이고 ‘잘 모르다’가 3.3%인 순으로 나타났다.

58.50%로 제일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는 ‘작용 한다’가 30.50%이고 ‘조금 작용 한다’가 8.00%이고 ‘작용 안 한다’가 3.00%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IV-13> 직업선택에 있어서 능력 적성의 작용에 대한인식 (%)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작용 안 한다	12 (3.00)	10 (5.00)	2 (1.00)	-	12 (3.17)	2 (2.67)	9 (2.95)	1 (5.00)
조금 작용 한다	32 (8.00)	17 (8.50)	15 (7.50)	2 (9.52)	30 (7.92)	5 (6.67)	25 (8.20)	2 (10.00)
작용 한다	122 (30.50)	57 (28.50)	65 (32.50)	4 (19.05)	118 (31.13)	22 (29.33)	95 (31.15)	5 (25.00)
아주 작용 한다	234 (58.50)	116 (58.00)	118 (59.00)	15 (71.43)	219 (57.78)	46 (61.33)	176 (57.70)	12 (6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알아보면 ‘작용 안 한다’는 남학생 5.00%로 여학생 1.00%보다 높았고 ‘작용 한다’는 여학생32.50%로 남학생 28.50%보다 높게 나왔다. 가정의 경제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아주 작용 한다’는 상위 층 학생이 71.43%로 중하위 층 학생57.78%로 높은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에서 ‘작용 안 한다’는 중졸자녀가 5.00%로 대졸자녀 2.67%와 고졸 자녀 2.95%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직업선택에서의 보수에 대한 인식정도

<표IV- 14>는 직업선택에서 월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그렇다’가 49.00%로 제일 높게 나왔으며 ‘별로 안 그렇다’는 24.00%이고 ‘정말 그렇다’는 21.00%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6.00%순으로 나타났다.

<표Ⅳ-14> 직업선택에서의 보수에 대한 인식정도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정말 그렇다	84 (21.00)	49 (24.50)	35 (17.50)	5 (23.81)	79 (20.84)	11 (14.67)	69 (22.61)	4 (20.00)
약간 그렇다	196 (49.00)	88 (44.00)	108 (54.00)	9 (42.86)	187 (49.34)	35 (46.67)	151 (49.51)	10 (50.00)
별로 안 그렇다	96 (24.00)	49 (24.50)	47 (23.50)	6 (28.57)	90 (23.75)	19 (25.33)	73 (23.93)	4 (20.00)
전혀 그렇지 않다	24 (6.00)	14 (7.00)	10 (5.00)	1 (4.76)	23 (6.07)	10 (13.33)	12 (3.93)	2 (1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정말 그렇다’에서 남학생 24.50%로 여학생 17.5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약간 그렇다’는 여학생이 54.00%로 남학생 44.00%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 경제수준 차이는 ‘약간 그렇다’가 중하위 층 자녀가 49.34%로 상위 층 자녀 42.8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는 ‘정말 그렇다’가 고졸 자녀 22.61%와 중졸자녀 20.00%로 대졸 자녀 14.6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3)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에 대한 인식정도

<표Ⅳ-15>는 전체 응답자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그렇다’가 37.75%로 나타났고 다음 ‘별로 안 그렇다’가 31.25%이며 ‘정말 그렇다’가 21.25%, ‘전혀 안 그렇다’가 9.75% 순위로 나타났다.

<표IV-15>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에 대한 인식정도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전혀 안 그렇다	39 (9.75)	26 (13.00)	13 (6.50)	3 (14.28)	36 (9.50)	4 (5.33)	33 (10.82)	2 (10.00)
별로 안 그렇다	125 (31.25)	67 (33.50)	58 (29.00)	6 (28.57)	119 (31.40)	25 (33.33)	95 (31.15)	5 (25.00)
약간 그렇다	151 (37.75)	73 (36.50)	78 (39.00)	9 (42.86)	142 (37.47)	31 (41.34)	111 (36.39)	9 (45.00)
정말 그렇다	85 (21.25)	34 (17.00)	51 (25.50)	3 (14.29)	82 (21.63)	15 (20.00)	66 (21.64)	4 (2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쪽으로 여학생보다 많이 나타났는데 즉 ‘전혀 안 그렇다’가 남학생13.00%로 여학생 6.50%보다 높았고 ‘정말 그렇다’가 남학생 17.00%로 여학생25.00%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상위 층이 중하위층에 비하여 직업이 귀천이 있는 쪽으로 나타났는데 ‘전혀 안 그렇다’가 상위 층 14.28%로 중하위 층 9.50%에 비하여 높게 나왔으며 ‘정말 그렇다’도 상위 층 자녀가 14.29%중하위층 자녀21.63%에 비하여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를 볼 때 ‘전혀 안 그렇다’가 중졸자녀 10.00%와 고졸 자녀 10.82%에 비해 대졸 자녀5.33%로 높게 나타났다.

(4)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한 인식

<표IV-16>은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한 인식을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이 64.00%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약간 찬성’이 20.75%이고 다음‘약간 반대’가 12.00%, ‘매우 반대’가 3.25%순으로 나타났다.

<표IV-16>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한 인식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반대	13 (3.25)	12 (6.00)	1 (0.50)	1 (4.76)	12 (3.17)	1 (1.33)	12 (3.93)	-
약간 반대	48 (12.00)	42 (21.00)	6 (3.00)	2 (9.52)	46 (12.14)	4 (5.33)	43 (14.10)	1 (5.00)
약간 찬성	83 (20.75)	53 (26.50)	30 (15.00)	4 (19.05)	79 (20.84)	13 (17.34)	66 (21.64)	4 (20.00)
매우 찬성	256 (64.00)	93 (46.50)	163 (81.50)	14 (66.67)	242 (63.85)	57 (76.00)	184 (60.33)	15 (7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매우반대’는 남학생이 6.00%에 비하여 여학생은 한명도 없었으며 ‘매우 찬성’이 여학생 81.50%에 비해 남학생 45.50%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가정경제 상황차이를 살펴보면 상위 층 자녀와 하위 층 자녀가 큰 차이가 나타 안 났고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매우 찬성’이 대졸 자녀가 76.00%와 중졸 자녀 75.00%로 고졸 자녀 60.3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5) 결혼한 여자가 계속 직장을 갖는데 대하여

<표IV-17>은 전체 응답자가 결혼한 여자가 계속 직장을 갖는데 대한 관점을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찬성’이 62.00%로 제일 높게 나왔고 다음은 ‘약간 찬성’이 19.75%이며 ‘약간 반대’13.00%, ‘매우 반대’ 5.25%순으로 나타났다.

<표Ⅳ-17> 결혼한 여자가 계속 직장을 갖는데 대한 인식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반대	21 (5.25)	14 (7.00)	7 (3.50)	1 (4.76)	20 (5.28)	1 (1.33)	19 (6.23)	1 (5.00)
약간 반대	52 (13.00)	33 (16.50)	19 (9.50)	3 (14.29)	49 (12.93)	3 (4.00)	48 (15.74)	1 (05.00)
약간 찬성	79 (19.75)	53 (26.50)	26 (13.00)	4 (19.05)	75 (19.78)	13 (17.33)	61 (20.00)	5 (25.00)
매우 찬성	248 (62.00)	98 (49.00)	150 (75.00)	13 (61.90)	235 (62.01)	58 (77.33)	177 (58.03)	13 (6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 차이를 분석해 보면 ‘매우 찬성’이 여학생 75.00%로 남학생 49.00%에 비해 높은 차이를 나타냈고 가정경제 상황차이는 상위 층과 중하위 층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매우 찬성’이 대졸자녀가 77.33%로 고졸자녀 58.03%와 중졸자녀 65.00%에 비해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6)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을 가진다는 관점에 대하여

<표Ⅳ-18>은 전체 응답자가 직장을 가지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관점을 알아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별로’가 60.75%로 제일 높았고 ‘그렇지 않다’가 18.25%이며 ‘그렇다’가 16.50%이고 ‘정말 그렇다’가 3.00%순으로 나타났다.

<표Ⅳ-18>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장을 가진다는 관점에 대하여,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정말 그렇다	12 (3.00)	9 (4.50)	3 (1.50)	-	12 (3.15)	1 (1.33)	10 (3.28)	1 (5.00)
그렇다	66 (16.50)	42 (21.00)	24 (12.00)	1 (4.76)	65 (17.15)	7 (9.34)	55 (18.03)	3 (15.00)
별로	243 (60.75)	112 (56.00)	131 (65.50)	15 (71.43)	228 (60.76)	48 (64.00)	182 (59.67)	12 (60.00)
그렇지 않다	73 (18.25)	31 (15.50)	42 (21.00)	5 (23.81)	68 (18.94)	19 (25.33)	58 (19.02)	4 (20.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그렇게 생각 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별로’와 ‘그렇지 않다’가 여학생이 각각 21.00%와 65.50%로 남학생 15.50%와 56.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 차이는 ‘그렇지 않다’와 ‘별로’는 상위 층 자녀가 각각 23.81%와 71.43%로 중하위층 자녀 18.94%와 60.7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는 대졸자녀들이 ‘그렇지 않다’와 ‘별로’에서 각각 25.33%와 64.00%로 고졸이나 중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직업에 대한 태도는 직업선택에서 거의 반수의 학생들이 보수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며 여자가 직업을 갖고 결혼한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바 70%이상의 여학생이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길 원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상위 층 자녀들이 중 하위 층 자녀에 비하여, 대졸자녀가 고졸이나 중졸자녀에 비하여 직업을 생계유지수단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많다.

4) 진로계획

(1) 자기진로에 대한 확실한 계획

<표IV-19>는 자기 진로에 대한 확실한 계획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가 45.50%로 제일 높았고 ‘그저 그렇다’가 30.75%이며 ‘좀 있다’가 14.50%이고 ‘확실히 있다’가 9.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9> 자기진로에 대한 확실한 계획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전혀 없다	182 (45.50)	94 (47.00)	88 (44.00)	6 (28.57)	176 (46.44)	18 (24.00)	156 (51.14)	8 (40.00)
그저 그렇다	123 (30.75)	74 (37.00)	49 (24.50)	8 (38.10)	115 (30.34)	34 (45.33)	81 (26.56)	8 (40.00)
좀 있다	58 (14.50)	21 (10.50)	37 (18.50)	5 (23.81)	53 (13.99)	12 (16.00)	43 (14.10)	3 (15.00)
확실히 있다	37 (9.25)	11 (5.50)	26 (13.00)	2 (9.52)	35 (9.23)	11 (14.67)	25 (8.20)	1 (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확실히 있다’와 ‘좀 있다’가 여학생이 13.00%와 18.50%로 남학생 5.50%와 10.5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상황 차이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가 중하위 층 자녀가 46.44%로 상위 층 자녀 28.57%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학력 수준차이를 보면 ‘전혀 없다’가 고졸자녀 51.14%와 중졸자녀 40.00%에 비하여 대졸자녀 24.00%로 높은 차이를 나타냈고 ‘확실히 있다’에서 대졸자녀 14.67%로 고졸자녀 8.20%와 중졸자녀 5.0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2) 진로계획을 세울 때 가장 도움이 많았던 사람

<표IV-20>는 진로계획을 세울 때 가장 도움이 많았던 사람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전문가’가 63.75%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친구나 선배’가 15.50%, ‘직업 정보자료’가 10.75%이며 ‘부모나 선생님’이 10.00%순으로 나타났다.

<표IV-20> 진로계획을 세울 때 가장 도움이 많았던 사람,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부모나 선생님	40 (10.00)	14 (7.00)	26 (13.00)	1 (4.76)	39 (10.28)	6 (8.00)	32 (10.49)	2 (10.00)
친구나 선배	62 (15.50)	24 (12.00)	38 (19.00)	4 (19.05)	58 (19.02)	9 (12.00)	47 (15.41)	6 (30.00)
상담 전문가	255 (63.75)	136 (68.00)	119 (59.50)	12 (57.14)	243 (64.11)	51 (68.00)	193 (63.28)	11 (55.00)
직업 정보자료	43 (10.75)	26 (13.00)	17 (8.50)	4 (19.05)	39 (10.29)	9 (12.00)	33 (10.82)	1 (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직업 정보자료’와 ‘상담전문가’가 남학생 13.00%와 68.00%로 여학생 8.50%와 59.5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가정경제 수준 차이에서 ‘직업 정보자료’가 상위 층 학생이 19.05%로 중하위 층 학생 10.2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는 ‘직업 정보자료’가 고졸자녀 12.00%와 고졸자녀 10.82%로 중졸자녀 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상담전문가’도 대졸자녀 68.00%와 고졸자녀 63.28%로 중졸자녀 55.0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3) 본인이 원하는 미래직업의 관심정도

<표IV-21>은 전체 응답자가 본인이 원하는 미래직업의 관심정도를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측하고 있다’가 45.75%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별로 관심이 없다’가 29.25%이고 ‘그 직업 조사 분석’이 16.25%이며 ‘생각해 본적 없다’가 8.75%순위로 나타났다.

<표IV-21> 본인이 원하는 미래직업의 관심정도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생각해 본적 없다	35 (8.75)	16 (8.00)	19 (9.50)	-	35 (9.23)	4 (5.33)	29 (9.50)	2 (10.00)
별로 관심 없다	117 (29.25)	58 (29.00)	59 (29.50)	6 (28.57)	111 (29.29)	18 (24.01)	90 (29.51)	9 (45.00)
추측하고 있다	183 (45.75)	94 (47.00)	89 (44.50)	10 (47.62)	173 (45.65)	37 (49.33)	138 (45.25)	8 (40.00)
그 직업 조사 분석	65 (16.25)	32 (16.00)	33 (16.50)	5 (23.81)	60 (15.83)	16 (21.33)	48 (15.74)	1 (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정 경제상황 차이를 살펴보면 ‘그 직업 조사 분석’은 상위 층 학생이 23.81%로 중하위 층 학생15.8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수준 별 차이에서 ‘그 직업 조사 분석’이 대졸자녀가 21.33%로 고졸자녀 15.74%와 중졸자녀 5.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4) 상급학교 진학하려는 이유

<표IV-22>는 전체 응답자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려는 이유를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력 때문에’가 34.50%이고 ‘진학을 위해서’가 29.75%이며 ‘다른 사람 권유’가 26.50, ‘적성에 맞다’가 9.25%순위로 나타났다.

<표IV-23> 자신의 진로선택 단계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고민 중	133 (33.25)	68 (34.00)	65 (32.50)	8 (38.10)	125 (32.98)	11 (14.67)	118 (38.69)	4 (20.00)
탐색 중	79 (19.75)	37 (18.50)	42 (21.00)	3 (14.29)	76 (20.03)	17 (22.67)	54 (17.70)	8 (40.00)
대체로 정함	120 (30.00)	59 (29.50)	61 (30.50)	6 (28.57)	114 (30.10)	38 (50.66)	77 (25.25)	5 (25.00)
구체적으로 확정	68 (17.00)	36 (18.00)	32 (16.00)	4 (19.04)	64 (16.89)	9 (12.00)	56 (18.36)	3 (1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정경제 수준차이를 보면 ‘고민 중’이 상위 층 자녀들이 38.01%로 중하위 층 자녀들32.98%에 비하여 좀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는 ‘대체로 정함’이 대졸자녀들이 50.66%로 고졸자녀 25.25%와 중졸자녀25.0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탐색 중’은 중졸자녀들이 40%로 대졸 자녀 22.67%와 고졸 07.7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6) 진로 선택 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표IV-24>는 진로 선택 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전체응답자를 상대로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구직분야 이해 부족’이 38.25%이고 ‘부모님과의 의견차이’가 36.75%며 ‘희망전공분야 이해부족’13.00%, ‘자기 적성과 소질’12.00%순으로 나타났다.

<표Ⅳ-24> 진로 선택 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부모님과 의견차이	147 (36.75)	79 (39.50)	68 (34.00)	8 (38.09)	139 (36.68)	15 (20.00)	127 (41.64)	5 (25.00)
구직분야 이해부족	153 (38.25)	72 (36.00)	81 (40.50)	7 (33.33)	146 (38.52)	25 (33.33)	116 (38.02)	12 (60.00)
희망전공분 야 "	52 (13.00)	21 (10.50)	31 (15.50)	3 (14.29)	49 (12.93)	14 (18.67)	36 (11.81)	2 (10.00)
자기 적성 과 소질 "	48 (12.00)	28 (14.00)	20 (10.00)	3 (14.29)	45 (11.87)	21 (28.00)	26 (8.53)	1 (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보면 ‘구직분야 이해부족’과 ‘희망전공분야 이해부족’에서 여학생이 각각 40.50%, 15.50%로 남학생 36.00%, 40.50%로 좀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과 의견차이’와 ‘자기 적성과 소질 이해부족’은 남학생이 각각 39.50%, 14.00%로 여학생 34.00%, 10.00%보다 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구직분야 이해부족’에서 중하위층 자녀가 38.52%로 상위 층 자녀 33.3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수준 차이에서는 ‘자기 적성과 소질’에서 대졸자녀가 28.00%로 고졸자녀 8.53%와 중졸자녀 5.00%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고 ‘구직분야 이해부족’은 중졸자녀가 60.00%로 대졸자녀 33.33%와 고졸자녀 38.02%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이 없고 고민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구직 분야에 대한 요해가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며 부모나 다른 사람의 권유,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 진로선택에서 부모와의 의견차이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대졸이나 중졸자녀에 비하여 고졸 자녀들이 부모와의 의견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진다.

5) 직업태도

(1) 남에게 인정을 받는 직업에 대한 평가

<표Ⅳ-25>는 전체 응답자가 남에게 인정받는 직업에 대한 평가를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매우 중요하다’가 45.25%로 제일 높았고 ‘중요하다’가 38.25%이며 ‘별로’가 13.50%, ‘중요하지 않다’가 3.00%순으로 나타났다.

<표Ⅳ-25> 남에게 인정을 받는 직업에 대한 평가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중요	181 (45.25)	83 (41.50)	98 (49.00)	11 (52.38)	170 (44.85)	32 (42.67)	142 (46.56)	7 (35.00)
중요	153 (38.25)	72 (36.00)	81 (40.50)	4 (19.05)	149 (39.31)	23 (30.67)	120 (39.34)	10 (50.00)
별로	54 (13.50)	38 (19.00)	16 (8.00)	4 (19.05)	50 (13.19)	17 (22.66)	34 (11.15)	3 (15.00)
중요하지 않다	12 (3.00)	7 (3.50)	5 (2.50)	2 (9.52)	10 (2.65)	3 (4.00)	9 (2.95)	-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매우중요하다’가 49.00%로 남학생 41.50%보다 높았고 ‘별로’는 남학생이 19.00%로 여학생 8.00%보다 높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가정의 경제수준 차이에서 ‘중요하다’가 중하위 층 자녀가 39.31%로 상위 층 자녀19.05%에 비하여 높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상위 층 자녀가 9.52%로 중하위 층 자녀2.6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에서 ‘별로’가 대졸자녀가 22.66%로 고졸자녀 11.15%와 중졸자녀 15.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2) 높은 보수에 대한 평가

<표Ⅳ-26>는 전체 응답자가 높은 보수에 대한 평가를 조사 통계한 결

과이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매우 중요’가 40.75%로 제일 높았고 다음은 ‘별로’가 28.75%이고 ‘중요’가 27.50%, ‘중요하지 않다’가 3.00%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6> 높은 보수에 대한 평가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중요	163 (40.75)	78 (39.00)	85 (42.50)	4 (19.06)	159 (41.95)	24 (32.00)	127 (41.64)	12 (60.00)
중요	110 (27.50)	61 (30.50)	49 (24.50)	12 (57.13)	98 (25.86)	31 (41.33)	73 (23.94)	6 (30.00)
별로	115 (28.75)	53 (26.50)	62 (31.00)	3 (14.29)	112 (29.55)	17 (22.67)	96 (31.47)	2 (10.00)
중요하지 않다	12 (3.00)	8 (4.00)	4 (2.00)	2 (9.52)	10 (2.64)	3 (4.00)	9 (2.95)	-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중요’가 30.50%로 여학생 24.50%에 비하여 좀 높게 나타났고 ‘별로’는 여학생이 31.00%로 남학생 26.50%보다 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 차이를 분석해 보면 ‘매우 중요’는 중하위 층 자녀가 41.95%로 상위 층 자녀 19.06%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나타냈고 ‘중요’는 상위 층 자녀가 57.13%로 중하위 층 자녀 25.86%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에서 ‘매우 중요’는 중졸자녀가 60.00%로 대졸자녀 32.00%와 고졸자녀 41.64%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나타냈고 ‘별로’는 고졸자녀 31.47%, 대졸자녀 22.67%이고 중졸자녀 10.00%순으로 나타났다.

(3) 안정된 직업에 대한 평가

<표 IV-27>은 전체 응답자가 안정된 직업에 대한 평가를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매우 중요’가 60.25%로 제일 높았고 ‘중요’가 19.75%이며 ‘별로’가 17.50%, ‘중요하지 않다’가 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27> 안정된 직업에 대한 평가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중요	241 (60.25)	114 (57.00)	127 (63.50)	14 (66.66)	227 (59.89)	38 (50.66)	191 (62.62)	12 (60.00)
중요	79 (19.75)	36 (18.00)	43 (21.50)	3 (14.29)	76 (20.05)	18 (24.00)	54 (17.71)	7 (35.00)
별로	70 (17.50)	42 (21.00)	28 (10.50)	4 (19.05)	66 (17.42)	17 (22.67)	52 (17.05)	1 (5.00)
중요하지 않다	10 (2.50)	8 (4.00)	2 (1.00)	-	10 (2.64)	2 (2.67)	8 (2.62)	-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별로’는 남학생이 21.00%로 여학생 10.50%에 비하여 높았고 가정경제 상황 차이를 보면 ‘매우 중요’는 상위 층 자녀가 66.66%로 중하위 층 자녀 59.8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중요’는 중하위 층 자녀가 50.05%로 상위 층 자녀 14.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를 보면 ‘매우 중요’는 고졸자녀와 중졸자녀가 각각 62.62%, 60.00%로 대졸자녀 50.66%보다 높았고 ‘중요’는 중졸자녀가 35.00%로 대졸자녀 24.00%, 고졸자녀 17.7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는 대졸자녀가 22.67%로 고졸자녀 17.05%와 중졸자녀 5.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4) 승진기회가 많은 일에 대한 평가

<표Ⅳ-28>은 전체 응답자의 승진기회가 많은 일에 대한 평가를 조사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가 46.25%로 제일 높았고 다음은 ‘매우 중요’ 39.00%이고 ‘별로’가 12.00%, ‘중요하지 않다’가 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28> 승진기회가 많은 일에 대한 평가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 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중요	156 (39.00)	77 (38.50)	79 (39.50)	10 (47.62)	146 (38.52)	22 (29.33)	125 (40.98)	9 (45.00)
중요	185 (46.25)	87 (43.50)	98 (49.00)	7 (33.33)	178 (46.97)	29 (38.67)	149 (48.85)	7 (35.00)
별로	48 (12.00)	30 (15.00)	18 (9.00)	4 (19.05)	44 (11.61)	21 (28.00)	24 (7.87)	3 (15.00)
중요하지 않다	11 (2.75)	6 (3.00)	5 (2.50)	-	11 (2.90)	3 (4.00)	7 (3.00)	1 (5.00)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분석해 보면 ‘중요’는 여학생이 49.00%로 남학생 43.50%보다 높았고 ‘별로’는 남학생이 15.00%로 여학생 9.0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에서 ‘매우 중요’는 상위 층 자녀가 47.62%로 중하위 층 자녀 38.52%에 비해 높았고 ‘중요’는 중하위 층 자녀가 46.97%로 상위 층 자녀 33.3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에서 ‘매우 중요’는 중졸자녀 45.00%, 고졸자녀 40.98%로 대졸자녀 29.3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별로’는 대졸자녀 28.00%로 고졸자녀 7.87%와 중졸자녀 15.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5) 장래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평가

<표Ⅳ-29>는 전체 응답자의 장래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평가를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가 58.25%로 제일 높았고 다음은 ‘중요’가 36.75%이며 ‘별로’가 4.75%, ‘중요하지 않다’가 0.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29> 장래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평가 빈도(%)

내 용 구 분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중요	233 (58.25)	103 (51.50)	130 (65.00)	16 (76.19)	217 (57.26)	37 (49.33)	187 (61.31)	9 (45.00)
중요	147 (36.75)	85 (42.50)	62 (31.00)	3 (14.29)	144 (38.00)	34 (45.33)	103 (33.77)	10 (50.00)
별로	19 (4.75)	11 (5.50)	8 (4.00)	1 (4.76)	18 (4.76)	3 (4.00)	15 (4.92)	1 (5.00)
중요하지 않다	1 (0.25)	1 (0.50)	-	1 (4.76)	-	1	-	-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차이를 보면 ‘매우 중요’는 여학생이 65.00%로 남학생 51.50%에 비하여 높았고 ‘중요’는 남학생이 42.50%로 여학생 31.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매우 중요’는 상위 층 자녀가 76.19%로 중하위 층 자녀 57.25%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중요’는 중하위 층 자녀가 38.00%로 상위 층 자녀 14.2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는 ‘매우 중요’가 고졸자녀 61.31%로 대졸자녀 49.33%와 중졸자녀 45.00%에 비하여 높았고 ‘중요’는 중졸자녀가 50.00%, 대졸자녀 45.33%로 고졸자녀 33.7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6) 적당한 근무시간에 대한 평가

<표Ⅳ-29>는 전체 응답자의 적당한 근무시간에 대한 평가를 통계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가 39.50%로 제일 높았고 다음은 ‘별로’가 36.50%이며 ‘매우 중요’ 22.50%, ‘중요하지 않다’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30> 적당한 근무시간에 대한 평가 빈도(%)

구분 \ 내용	계	성별		가정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남	여	상위	중위,하위	대졸	고졸	중졸
매우 중요	90 (22.50)	45 (22.50)	45 (22.50)	9 (42.86)	81 (21.37)	14 (18.67)	72 (23.61)	4 (20.00)
중요	158 (39.50)	58 (29.00)	100 (50.00)	7 (33.33)	151 (39.84)	43 (57.33)	102 (33.44)	13 (65.00)
별로	146 (36.50)	92 (46.00)	54 (27.00)	4 (19.05)	142 (37.47)	15 (20.00)	128 (41.97)	3 (15.00)
중요하지 않다	6 (1.50)	5 (2.50)	1 (0.50)	1 (4.76)	5 (1.32)	3 (4.00)	3 (0.98)	-
계	4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1 (100.00)	379 (100.00)	75 (100.00)	305 (100.00)	20 (100.00)

성별 차이를 보면 ‘중요’는 여학생이 50.00%로 남학생 29.00%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별로’는 남학생이 46.00%로 여학생 27.00%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매우 중요’는 상위 층 자녀가 42.68%로 중하위 층 자녀 21.37%에 비하여 높았고 ‘별로’는 중하위 층 자녀 37.47%로 상위 층 자녀 19.0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에서 ‘중요’는 중졸자녀 65.00%로 대졸자녀 57.33%와 고졸자녀 33.4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별로’는 고졸자녀 41.97%로 대졸자녀 20.00%와 중졸자녀 15.0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직업가치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정을 받는 직업’, ‘보수 많은 직업’, ‘안정된 직업’, ‘장래성이 있는 직업’, ‘승진기회가 많은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게 나타났고 또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도 자녀의 직업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진로 의사결정 유형 및 차이 검증

1) 의사결정 유형의 성별 차이

<표IV-31> 의사결정유형의 성별차이

유형	성별	n	M	SD	t
합리적 의사결정	남자	200	13.27	1.96	2.801**
	여자	200	12.73	1.95	
의존적 의사결정	남자	200	15.12	1.96	-.476
	여자	200	15.21	1.94	
직관적 의사결정	남자	200	14.42	1.95	2.205**
	여자	200	13.99	1.96	
합계	남자	200	42.80	3.30	2.621**
	여자	200	41.92	3.46	

** P < .01

<표IV-31>는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의사결정유형의 성별차이를 조사 통계한 결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의존적 의사결정은 남학생과 여학생사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의사결정유형의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

<표IV-32> 의사결정유형의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

유형	가정경제수준	n	M	SD	t
합리적 의사결정	상	21	13.24	1.92	.640
	중,하	379	12.98	1.98	
의존적 의사결정	상	21	15.24	1.81	.206
	중,하	379	15.16	1.97	
직관적 의사결정	상	21	14.32	1.91	.318
	중,하	379	14.19	1.97	
합계	상	21	42.80	3.12	.673
	중,하	379	42.33	3.43	

<표IV-32>는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의사결정유형의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조사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의사결정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의사결정유형의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

<표IV-33>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

유형	부모의 학력	n	M	SD	F
합리적 의사결정	대졸	75	12.85	1.89	1.694
	고졸	305	12.98	1.93	
	중졸	25	13.75	2.77	
	합계	400	13.00	1.98	
의존적 의사결정	대졸	75	15.20	1.92	.133
	고졸	305	15.14	1.94	
	중졸	25	15.35	2.46	
	합계	400	15.16	1.96	
직관적 의사결정	대졸	5	13.91	2.25	1.138
	고졸	305	14.26	1.89	
	중졸	25	14.45	1.79	
	합계	400	14.20	1.96	
합계	대졸	75	41.96	3.11	1.765
	고졸	305	42.38	3.31	
	중졸	20	43.55	5.34	
	합계	400	42.36	3.41	

<표IV-33>은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의사결정유형이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조사결과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가 자녀의 의사결정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중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앞으로 바람직한 진로교육, 진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획득하여 가는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 필요성이 적실하다.

본 연구는 현재 연변지역의 중학생들의 진로 의식 실태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는 어떠한가?

1-1. 진로의식실태는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별,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1-2. 진로의식의 하위요인인 자아인식, 직업가치관, 진로계획, 직업태도는 어떠한가?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중국연변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인 합리적·의존적·직관적의 사결정은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중국연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생 6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그중 400부를 표집대상으로 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사용한 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1986)<진로의식에 관한 기초조사연구>를 참고로 중국연변지역 중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설문지 30문이고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검사는 Harren(1984)의 설문지를 고향자(1992)번안 수정한 설문지 30문항으로 총 60문항인 설문지이다. 자료처리는 진로의식 실태에 대한 조사- 5개 하위요인(자아에 대한 인식,

진로계획, 직업가치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태도)의 매 30개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가정의 경제수준별 빈도와 백분율 산출해 내서 비교 분석하였고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해서는 3개 문항(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별 평균점수를 산출해 내어 t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p < .01$ 과 $p < 0.5$ 의 유의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의사결정유형과 부모의 학력수준차이는 F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p < .01$ 과 $p < .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으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진로의식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 자아에 대한 인식에서 중학생들이 자기 소질능력이나 소질, 흥미에 대하여 47%의 학생들이 대충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의 소질이 높다는 인정하는 학생이 4.75%밖에 안 되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공부에 대한 흥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54%의 남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가 높다고 하였고 46.00%의 여학생이 공부에 대한 흥미가 낮다고 하였다.

가정경제 수준 차이에서 자기능력이나 소질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상위층 자녀가 47.76%로 중하위 층 자녀 30.08%에 비하여 높았고 자기 소질을 가꾼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상위 층 자녀가 52.38%로 중하위 층 자녀 26.1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자녀가 42.67%로 고졸자녀 24.92%와 10.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2)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업에 대한 관심은 53.25%의 학생들이 '관심이 약간 있다'하였고 일의 종류의 변화는 70.00%의 학생들이 약간 늘거나 많이 늘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의 직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래직업에 대한 확정도는 6.75%의 학생들이 '확실히 결정'했다고 하였다.

직업공부에 대한 관심은 가정경제수준이 상위 층 자녀들이 '매우 관심이 있다'가 33.33%로 중하위 층 자녀 19.53%에 비하여 높게 나왔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대졸인 자녀가 33.33%로 고졸 17.05%와 중졸 20.00%에 비하여

높게 나왔다.

(3) 직업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선택에서 58.5%의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이 '아주 큰 작용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자가 직업을 갖고 결혼한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매우 찬성'에서 남학생이 46.50%, 49.00%이고 여학생이 81.50%, 75.00%이다.

직업선택에서 능력 적성의 작용을 가정경제수준이 상위 층인 자녀가 '아주 작용을 하다'가 71.43%로 중하위 층 자녀 57.78%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직업을 생계유지수단을 인정하는 학생을 보면 경제상황이 상위 층 자녀가 4.75%에 비해 중하위 층 자녀 17.15%로 높은 차이를 나타냈고 고졸 자녀 18.03%, 중졸 자녀 15.00%로 대졸 자녀 9.3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4) 진로 계획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45.50%의 학생들이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33.25%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 중으로 응답했다. 진로 선택 시 어려웠던 문제는 구직분야의 이해 부족이 38.25%로 제일 높았고 부모와의 의견차이 36.75%를 나타냈다. 학생들이 진학하려는 이유는 적성에 맞다고 응답한 학생이 9.25%밖에 안 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력 때문에, 진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응답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확실한 진로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계획이 없는 학생은 남학생이 37.00%이고 여학생이 24.50%로 나타났고 자기 적성과 소질에 의한 선택에서 대졸 자녀 28.00%로 고졸자녀 8.53%와 중졸자녀 5.0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자신의 진로선택에서 대체로 정한 학생을 보면 대졸자녀가 50.66%로 고졸자녀 25.25%와 중졸자녀 25.00%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진로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학생을 보면 고졸 자녀 51.14%, 중졸자녀가 40.00%로 대졸자녀 24.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가정경제수준이 중하위 층 자녀가 46.44%로 상위 층 자녀 28.5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5) 직업가치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남에게 인정을 받는 직업을 매우 중요시 한바 45.25%의 학생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가정경제수준

이 상위 층 자녀 52.38%로 중하위 층 자녀 44.85%보다 높게 나타났고 많은 보수가 ‘매우중요하다’고 응답학생이 40.7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0.25%의 학생들이 안정된 직업을 선호했고 승진기회가 많은 일에 대하여 85.25%의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이 상위 층 자녀 76.19%가 장래성이 있는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하였고 중하위 층 자녀 57.26%로 높은 차이를 보였고 승진기회가 많은 일 선호에서 고졸 자녀 40.98%, 중졸자녀 45.00%로 대졸자녀 29.33%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많은 보수 직업에 대한 선호는 가정경제수준이 중하위 층 자녀가 41.95%로 상위 층 자녀 19.06%에 비하여 높은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중졸인 자녀가 60.00%로 고졸 자녀 41.64%와 대졸자녀 32.0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2)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성별차이는 t검증결과 합리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의존적 의사결정은 남학생과 여학생사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의사결정유형의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t검증으로 검증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의사결정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의사결정유형이 부모의 학력수준별 차이에 대하여 F검증 결과 부모의 학력수준이 자녀의 의사결정유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자아에 대한 인식 면에서 아직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 소질과 적성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위 층인 자녀들이 보편적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높다.

2)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은 많은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장래 직업에 대한 확정 도는 매우 낮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대한 요해가 깊지 못하며 직업공부에 대한 흥미가 높지 못하다.

3) 직업에 대한 태도는 직업선택에서 거의 반수의 학생들이 보수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며 여자가 직업을 갖고 결혼한 여자가 직업을 갖는데 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바 70%이상의 여학생이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길 원했다. 경제수준이 상위 층 자녀들이 중하위 층 자녀에 비하여, 대졸자녀가 고졸이나 중졸자녀에 비하여 직업을 생계유지수단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많다.

4)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이 없고 고민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구직 분야에 대한 요해가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며 부모나 다른 사람의 권유,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 진로선택에서 부모와의 의견차이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대졸이나 중졸자녀에 비하여 고졸 자녀들이 부모와의 의견차이가 더 많다.

5) 직업가치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정을 받는 직업’, ‘보수 많은 직업’, ‘안정된 직업’, ‘장래성이 있는 직업’, ‘승진기회가 많은 직업’ 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고 또 부모의 학력수준과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도 자녀의 직업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6) 중학생의 의사결정유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은 성별과 관계가 있는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고 의존적 의사결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7) 중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은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학력수준과는 상관없이 없다. 이는 현재 중국연변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과 가정교육이 민주적인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을 자녀들이 많이 따르고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에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가정의 경제수준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진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중국연변의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의 중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진로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제언

중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은 확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중국연변지역교육은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현장에서 활발하고 능동적인 진로교육과 지도가 요구되는바 본 연구자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중학생들의 진로탐색 단계에 알맞은 진로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며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실시가 필요하다.

2) 학교현장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각종 심리검사 기회를 보다 많이 실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3) 교사, 학부모, 학생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각종직업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의 궁금증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4) 각 교과 시간마다 단원성격에 맞는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진로지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우선되어 진로지도에 적극적인 참여를위해서 교육행정으로부터 자료개발과 교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겠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 박영숙 (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강재태, 배종훈, 강대구 (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강재태 (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유형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 (2001). 상담심리학, 학지사
- 김덕년 (2001).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외 (2003).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영만 (2001). 청소년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만 (1999).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규 (2001년). 중학생의 진로의식과 관계변인에 관한연구, 세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철연 (2001). 중학생의 진로의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 영사
(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노인숙 (2002). 중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훈 (1999). 진로결정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형률 (1995). 농촌지역 아동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우석 (1998).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사범대학연구소 (1981). 국어학 용어사전, 배 영사

- 양제석 (2001). **고등학교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 미결정 유형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찬규 (1997) **중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1987). **중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 (1998). **진로의사결정과 개인적 변인들과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진로교육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1997).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조사연구**
- 임태옥 (2000). **중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의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병호 (1997). **중학생의 가정환경과 진로의식발달과의 관계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 (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조남형 (1998).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동렬 (1997).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윤경(2000). **진로상담을 위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 상담원 (1996). **진로의사결정 훈련**
- 한국교육개발원 (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_____ (1986). **진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
 _____ (1996). **진로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한국진로교육학회 묶음 (1999). **진로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황규업 (1997).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inklage, Lillian B. *Adolescent Choice and Decision-Making-A Review of Decision-Making Models and Issues in Relation to Some*

- Developmental Stage Tasks of Adolescence.* Combrid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1966).
- Ginzberg, Eli E, Ginzberg, sol W, Axelord Sidney, and Herma John, *Ocupational Choice :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 Ginzberg, Eli E, Ginzberg, sol W, Axelord Sidney, and Herma John, *Ocupational Choice :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3).
- Marland, Sidney p, *Career Education*(New york ; McGraw-Hill BookCo, 1971).
- Super, D, E, & Overstewr, p. L. *The Vocational of Ninth Grade Boys* (New York : Teachers-College Bureau of Publication, 1960)



<Abstract>

**Researches of Career Consuousnes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the Yonbyon area, China***

Kim, Young Ok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h, Chul -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Career Conscious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Yonbyon area, China and to present the right way and task for career education at schools in future after grasping current problem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status of career consciousnes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Yonbyon area?

Second, what are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Yonbyon area?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ere was a survey with 600 students from 6 middle schools located in the Yonbyon area, 400 students Of whom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survey.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Education in August, 2005.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are classified in two parts, survey for the status of career consciousness was based on the fundamental research for career consciousness b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

(1996) but modified by myself to conform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Yonbyon area.

Test for career decision-making style was done with use of Korean translated & modified questionnaire by Ko Hyang-Ja (1992) of Haren (1984) data processing was done by computation of frequency & percentage of 5 subordinate factors appeared on the survey for Status of Career Consciousness (self-recognition, career plan, One's value of occupation, understanding of occupational word, occupational attitude) and analyzed comparatively, 3 subordinate factors for career decision-making style (logical style, intuitive style, dependent style) was done by the T & F tests to find if it's difference was meaningful in the level of $p < .01$ & $p < 0.5$.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as follows:

1) Many students didn't know well about their aptitude and ability in aspect of self-recognition yet, some students who know it more or less were also lack of self-confidence for their aptitude and ability, children whose parent had high level of academic background and were wealthy generally understood their

Self-recognition.

2) In recognition of vocational world, many students were very interested in it, but their decision on future occupation was vague and most students didn't understand well about their occupational world, showing less concern on their study for occupation

3) In aspect of occupational attitude, almost half of the students chose their occupation for remuneration in the matter of a woman's holding an occupation and working after marriage,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More than 70% of female students wanted to maintain their occupation after marriage. However children from wealthy family admitted an occupation as a means of living more than ones from poor family, but children of a college graduate admitted an occupation as a means of living less, compared to children of a high & middle school graduate.

4) Many students didn't have a solid plan for their career but being worried, experiencing a mental conflict, and they were lack of understanding for a field of occupation and their reason for continuation of study toward higher grade was uncertain, there were many students who study to enter a school of higher grade by the recommendation from their parents or other acquaintance.

In choosing career, there were many students being worried for dissension between parents. Children of a high school graduate had more dissension than those whose parents were a college or middle school graduate.

5) Regarding their value of occupation, most students preferred authorized, more paid, stable, promising occupation with many chance of promotion, a parental level of academic background and the standard of living had many influence on children's value of occupation.

6) In aspect of decision making style by a middle school student, male students were positioned in logical decision making styles and intuitive decision-making styles more than the girl students, dependent decision making was not related to sex.

7) The decision making styles of a middle school student was not related to the standard of living and parental level of academic background. This means as the Chinese school education and home education are much lack of democratic elements, when children make a decision, they obey their parent's unilateral decision a tendency toward dependence on them caused these styles.

This concludes that a right career education is urgently requir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at community, school and home in the Yonbyon area, China.

부 록

[부록 1] 중학생의 진로 의식 실태 조사 설문지.....	69
[부록 2]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조사 설문지.....	71

설 문 지

중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진로의식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사하여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로란 여러분이 학업을 마친 이후에 가지게 될 일 또는 직업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학업 성적과도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들을 솔직하게 한 문제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2004년6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김영옥

___시(현), ___중학교,

- ♣ 성 별: 남 (), 여 (),
- ♣ 가정의 경제수준: 상 (), 중, 하 (),
- ♣ 부모의 학력수준: 대졸(), 고졸(), 중졸이하(),

중학생의 진로의식실태와 진로의사결정

유형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부록 1] 중학생의 진로의식 실태 조사 설문지:

각 설문지 문항을 잘 읽고 답; (1), (2), (3), (4) 중에서 자기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 하나만 골라서 설문 답안지 해당 번호 뒤에 적어주세요.

1.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알고 있습니까?
(1)전혀모른다, (2)잘모른다, (3)대충안다, (4)잘알다.
2.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낮다, (2)좀 낮다, (3)좀 높다, (4)높다.
3. 여러분은 공부에 대한 흥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1)매우낮다, (2)낮다, (3)높은편이다, (4)매우높다.
4. 여러분은 자기의 특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전혀없다, (2)별로없다, (3)있다, (4)자랑할만한것이있다.
5. 여러분은 자신의 소질이 자기 반에서 어느정도라 생각합니까?
(1)많이뒤진다, (2)보통이다, (3)좀뛰어나다, (4)아주뛰어나다.
6. 자기 소질을 가꾼다면 어떻게 될것이라 생각합니까?
(1)기대안한다, (2)그냥그럴것이다, (3)조금발전, (4)많은발전
7. 일(직업)에 대한 공부는 중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매우반대, (2)약간반대, (3)약간찬성, (4)매우찬성
8. 여러분은 일(직업)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전혀관심없다, (2)별로없다, (3)약간있다, (4)매우관심있다

9. 여러분은 직업의 종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별로알지못하다, (2)약간알다, (3)많이알다, (4)매우많이알다

10. 여러분은 장래 일(직업)의 종류가 어떻게 변하리라 생각합니까?

(1)매우줄것이다, (2)약간줄것이다, (3)약간늘것이다, (4)매우늘 것이다

11. 여러분은 장래의 직업을 결정했습니까?

(1)전혀고려없다, (2)생각중, (3)결정했다, (4)확실히결정했다

12. 여러분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잘모른다, (2)조금안다, (3)잘알고있는편이다, (4)아주잘알고 있다

13.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자기의 능력, 특기, 소질, 성격 등이 얼마나 작용 한다고 생각합니까?

(1)작용안한다, (2)조금작용한다, (3)작용하는편, (4)아주많이작용

14.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월급(보수)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1)정말그렇다, (2)약간그렇다, (3)별로안그렇다, (4)전혀그렇지않다

15.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1)전혀안그렇다, (2)별로안그렇다, (3)약간그렇다, (4)정말그렇다

16. 여자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1)매우반대, (2)약간반대, (3)약간찬성, (4)매우찬성

17. 여자들은 결혼하여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매우반대, (2)약간반대, (3)약간찬성, (4)매우찬성

18.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갖는 것이다.

(1)확실히그렇다 2)그렇다 (3)좀그렇다 (4)아니다

19. 학생은 자기의 진로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전혀없다, (2)그저그렇다, (3)좀있다, (4)확실히있다

20. 진로계획을 세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부모나선생님조언, (2)친구나선배의조언, (3)상담전문가, (4)직업정보자료

21. 본인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관심 정도는?
(1)생각해본적이없다, (2)별로, (3)추측, (4)그직업에대해조사분석

22.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려는 이유는?
(1)다른사람권유때문에, (2)실력 때문에, (3)진학을위해서, (4)적성에맞기때문에

23. 자신의 진로선택은 지금 어느 단계라 생각합니까?
(1)고민중, (2)탐색중, (3)대체로정함, (4)구체적으로 결정

24.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점은?
(1)부모님과 의견차이로, (2)구직하기쉬운 분야를몰라서,
(3)희망직업전공분야를 몰라서, (4)적성과소질을 몰라서

매우중요, 중요, 별로, 중요하지않다

25. 남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직업, (1) (2) (3) (4)
26. 많은 봉급, (1) (2) (3) (4)
27. 안정된 직업, (1) (2) (3) (4)
28. 승진 기회가 많은 일, (1) (2) (3) (4)
29. 장래성 있는 직업, (1) (2) (3) (4)
30. 적당한 근무시간, (1) (2) (3) (4)

[부록 2]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조사 설문지:

각 설문지 문항을 잘 읽고 답; (1), (2) 중에서 자기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 하나만 골라서 설문 답안지 해당 번호 뒤에 적어주세요.

1.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1)그렇다, (2)아니다.
2. 나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1)그렇다, (2)아니다.
3. 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1)그렇다, (2)아니다.
4.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1)그렇다, (2)아니다.
5.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
(1)그렇다, (2)아니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1)그렇다, (2)아니다.
7.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재빨리 결정 내린다.
(1)그렇다, (2)아니다.
8.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이나 생각에 따른다.
(1)그렇다, (2)아니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 하냐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
(1)그렇다, (2)아니다.
10.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1)그렇다, (2)아니다.
11. 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철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결정을 한다.
(1)그렇다. (2)아니다.
1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

- 는다. (1)그렇다. (2)아니다.
13. 나는 중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예상될 때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1)그렇다, (2)아니다.
14. 나는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1)그렇다, (2)아니다.
15.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1)그렇다, (2)아니다.
16. 나는 의사결정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1)그렇다, (2)아니다.
17.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1)그렇다, (2)아니다.
18.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1)그렇다, (2)아니다.
19.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1)그렇다, (2)아니다.
20. 나의 인기를 떨어뜨릴 의사결정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1)그렇다, (2)아니다.
21.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예감 또는 육감을 중요시한다. (1)그렇다, (2)아니다.
22. 나는 조금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의사결정임을 확신하고 싶기 때문이다. (1)그렇다, (2)아니다.
23. 어떤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본다. (1)그렇다, (2)아니다.
24.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1)그렇다, (2)아니다.
25. 종종 내가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을 일정한 목표를 향한 진보의 단계들

로 본다. (1)그렇다, (2)아니다.

26.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1)그렇다, (2)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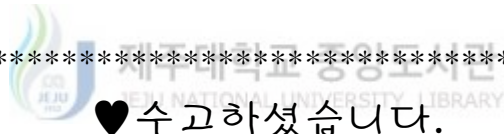
27.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그 결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고 싶다. (1)그렇다 (2)아니다.

28. 나는“이것이다”라는 느낌에 의해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 (1)그렇다, (2)아니다.

29. 대개의 경우 나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1)그렇다, 2)아니다.

30.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1)그렇다, (2)아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생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 ^^